

2011. 9. 5 제270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9. 5 제270호

문화·디자인

1. '전철 타고 떠나는 도시 문화여행' 홈페이지 운영 (런던)
2. 춤예술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마케팅 프로젝트 실시 (베를린)

산업·경제

(토막기사) 도심 외곽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런던)

건강·복지

(토막기사) 비어 있는 시영 아파트를 NGO 사무실로 제공 (일본 오사카市)

행정·재정

(토막기사)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방재·안전

3. 우범지역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 범죄 예방 도모 (영국 켄트市)

도시환경

4. 사회·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도시경관 조성전략 수립
(베를린)
5.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 지원단체 모집 (도쿄)
(토막기사)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선택적 촉매 저감 장치를 버스에 장착하는 시범사업 실시 (런던)

도시교통

- (토막기사) 여름철 도로공간 개방 프로젝트 ‘Summer Streets’ 시행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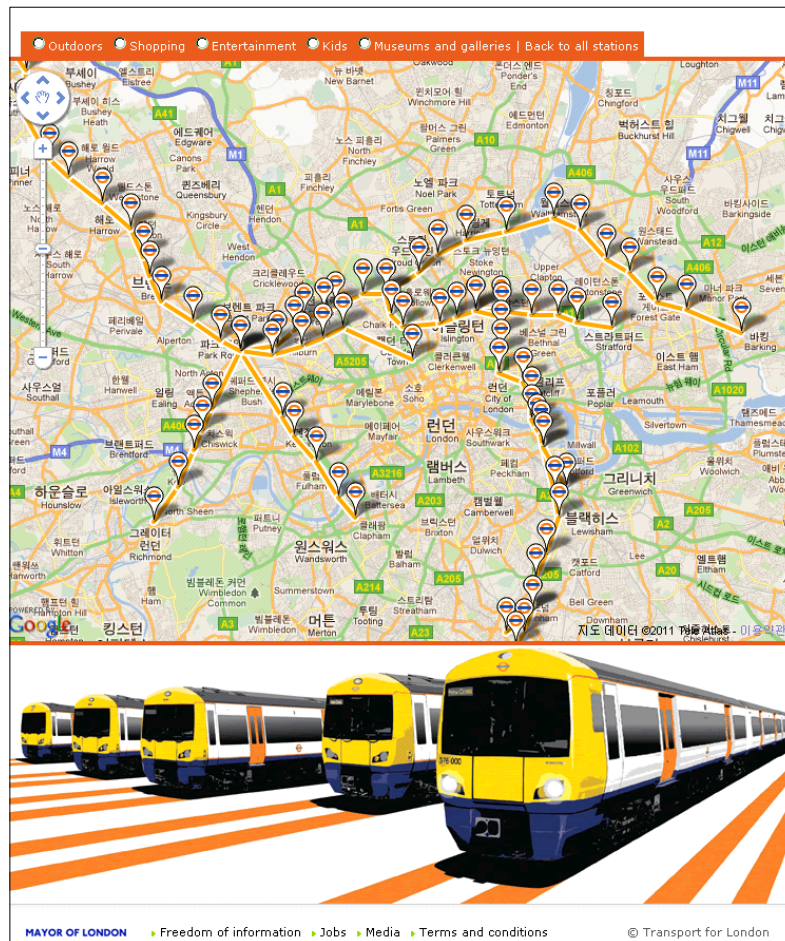
도시계획·주택

6. 향후 20년간의 도시 미래를 담은 새로운 ‘런던플랜’ 출간 (런던)
 7.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정책 추진 (일본 교토市)
(토막기사) ‘유비쿼터스 계획’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공모 (도쿄)
-

문 화 · 디 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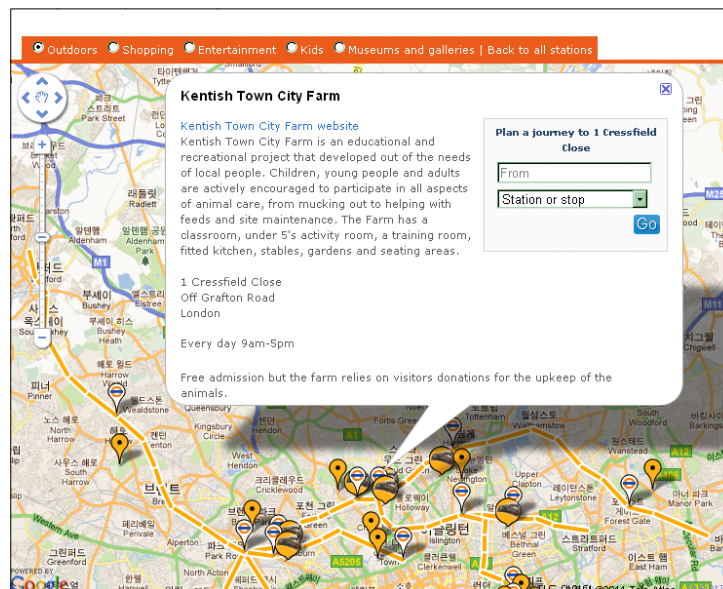
1. ‘전철 타고 떠나는 도시 문화여행’ 홈페이지 운영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지상철(Overground) 구간을 따라 방문할 수 있는 문화, 환경, 예술시설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함. 노선·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학 맞이 온라인 퀴즈 프로그램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전철 타고 떠나는 도시 문화여행’ 안내 홈페이지】

- 지상철 구간별로 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역별로 자세히 표시한 지도를 제공함. 이 지도는 구글 지도와 연동되어 전철역과 인근 지역을 검색할 수 있고, 시설의 성격에 따라 야외시설, 상가, 위락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작됨.



【지상철 인근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 예시】

- 예를 들어 위 그림과 같이 켄티시 타운(Kentish Town) 지역을 클릭하면 인근 도시농장의 홈페이지 주소, 간략한 소개와 주소, 운영 시간, 유·무료 입장 관련 정보,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경로 탐색창이 제공됨.
-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시설을 방문한 후 퀴즈를 풀어서 정답을 맞히면 경품을 주는 온라인 퀴즈 프로그램 ‘Be a Culture Vulture!’(문화 독수리가 되자!)를 운영 중임.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방학을 값지게 보낼 체험시설을 안내 받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응모를 통해 인기 게임기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음. 또한 지상철과 연계된 문화시설의 경우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됨.

- 市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을 연결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낙후된 전철구간을 사들여 이를 보수해 다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상철 노선을 확장해왔음.

London Overground competition

Projects and Schemes > London Overground > London Overground competition

Win an Xbox 360 Kinect

Be a Culture Vulture

Here is our great competition: Just answer any three of the eight questions below, plus the bonus question, and you could win one an Xbox 360 Kinect! You can also win one of 10 family passes to the London transport Museum which lasts a whole year.

- Find out what exciting events are on
- Explore London Overground attractions map



Entrants must be 16 years or younger.

Mandatory fields are marked *

Questions

Answer any 3 of the 8 questions **plus** the bonus question

- In the Horniman Museum there is an Ostrich display. How many unbroken eggs can you see inside?
- At the entrance to Crystal Palace Park there is a painting of a train. How many dinosaurs can you see having a ride?
- At Camden Lock bridge there is a sign that says 'The Interchange'. Which year can you see engraved above it?
- Which type of chair can you see on the side of 'Camden Interiors', number 19 Chalk Farm Road?
- Walking past the stables of Kentish Town City Farm you will see a wall painting of some cows, but how many cows are there?
- In metres, how deep is the 'deep end' of the Parliament Hill Lido?
- There are three dates on the bench under the 'Temple of Bellona' in Kew Gardens, but which of the dates is the earliest?

【지상철과 연계된 문화시설 방문 후 퀴즈에
응모할 수 있는 홈페이지 모습】

(www.tfl.gov.uk/corporate/projectsandschemes/16224.aspx)

(www.tfl.gov.uk/corporate/projectsandschemes/20422.aspx)

2. 춤예술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마케팅 프로젝트 실시 (베를린)

○ 베를린市는 베를린 춤예술 사무소, 베를린 문화프로젝트社(Kulturprojekte Berlin GmbH)와 함께 2011년 8월부터 춤예술 마케팅 프로젝트에 착수함.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시민과 관광객이 춤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무대공연을 많이 관람하도록 하는 데 있음. 이는 市가 유럽의 춤예술 도시인 런던, 파리, 빈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임.

- 춤예술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예술장르임. 그런데 중심이 없이 개별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춤예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업구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市는 이러한 관점에서 춤예술의 개별화된 발전경향과 춤예술에 대한 인식의 편협성을 지양하고 춤예술을 통합적인 콘셉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임.
- 현재 춤예술 마케팅 프로젝트에는 베를린 국립극장과 자유무대, 발레와 최근 개발된 다양한 현대 춤 분야의 예술가들이 동참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탄츠카드(Tanzcard) 발행: 연회비 15유로(약 2만 3000원)의 탄츠카드를 발급해 시민이 市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춤 공연을 20%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게 함.
 - ② 잡지 ‘춤공간 베를린’(Tanzraumberlin) 발간: 베를린에서 열리는 모든 춤 공연에 대한 정보지로서 2개 국어(독일어, 영어)로 격주 발행하며 문화 분야 공공기관, 관광지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 무료 배포함.

- ③ 인터넷사이트(www.tanzraumberlin.de) 개설 : 예술가와 일반인에게 실시간 춤예술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정책 동향, 춤예술가 구인·구직정보 등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춤예술 문화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 ④ 춤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행사 ‘Mapping Dance Berlin’ 개최 : 춤과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연, 워크숍, ‘춤예술 문화도시 베를린 관광’ 등의 행사를 개최함. 이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춤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워 줌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을 더 많은 춤예술 무대로 끌어들이는 데 기여함.
- 市는 유럽연합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15만 8000유로(약 2억 4000만 원)와 市 예산 및 개인 후원금을 합쳐 총 38만 유로(약 5억 8000만 원)를 투입해 이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함.
(www.berlin.de/sen/kultur/presse/archiv/20110817.1100.355167.html)
(dance-germany.org/index.php?id=21907&pos=07000)

산 업 · 경 제

도심 외곽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런던)

- 런던市는 도심 주변지역(Outer London)에 위치한 자치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8월 초에 약 1000만 파운드(약 172억 원)를 지원함. 이 재원은 도심 주변지역에 있는 20개 자치구 중심부의 경제 활성화에 사용됨. 올해 후반기에는 4000만 파운드(약 690억 원)가 추가 지원됨.

- 市는 도심 외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3년간 5000만 파운드(약 862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현재 20개 자치구에서는 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市가 보조해 추진 중인 도심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은 새로운 공공예술 창출, 새로운 녹지공간 및 가로공간 조성, 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임. 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엔필드區에서는 이 자금을 비어 있는 가게 재활용, 새로운 거리시장 조성, 가로조명과 경관 증진, 음식·음악 페스티벌 개최 등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bringing-buzz-back-london%E2%80%99s-high-streets-mayor-announces-almost-%C2%A310m-fu)

건 강 · 복 지

비어 있는 시영 아파트를 NGO 사무실로 제공 (일본 오사카市)

- 일본 오사카市는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비어 있는 시영(市營) 아파트 1층을 NGO에 빌려줌. NGO는 이곳을 거점으로 고령자나 어린이 지원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
- 예를 들어 노인들과 함께 하는 지역미화 활동, 고령자 병간호 서비스, 노인 간 교류활동, 어린이의 방과 후 학습, 탁아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

(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136172.html)

행 정 · 재 정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 베를린市 리히텐베르크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주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함. 리히텐베르크區는 쓰레기, 하수, 소음 및 악취, 녹지 및 공공놀이터 훼손, 해충 피해, 공공공간 및 공공기물 파괴, 교통방해 등 7개 분야에서 결함, 불편사항, 무질서를 발견할 경우 ‘Maerker’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고 및 건의내용을 간단히 기입해 제출하면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항은 다음날 오후 6시부터 늦어도 3일 안에 區의 처리사항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이메일로도 개인에게 전달됨. 신고·건의사항별로 빨강(미해결), 노랑(처리 중), 녹색(해결 완료)으로 표시해 주민들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음.
- 이 포털사이트는 주민친화적이고 열린 행정의 주요 도구로 평가됨. 市는 리히텐베르크區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市 전체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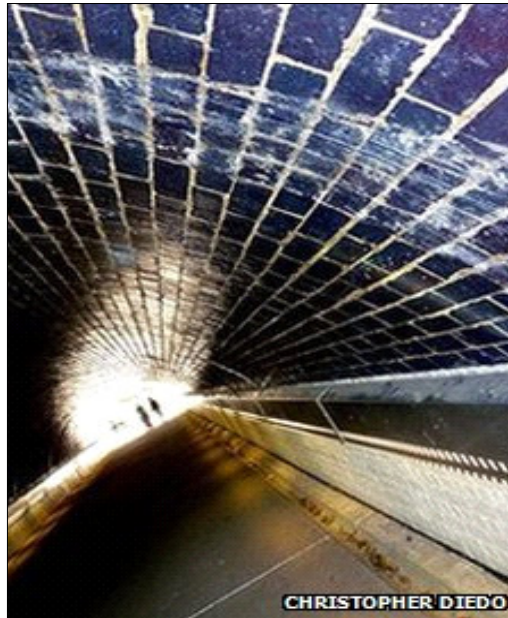
(www.berlin.de/ba-lichtenberg/presse/archiv/20110818.1210.354431.html)

(www.berlin.de/sen/inneres/presse/archiv/20110818.1435.355315.html)

방 재 · 안 전

3. 우범지역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 범죄 예방 도모 (영국 켄트市)

- 으스스한 터널이나 철로 주변, 다리 아래 등이 우범지역으로 변해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무분별한 낙서로 공공시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음.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켄트市는 우범지역이 된 도보터널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음향시설을 설치한 결과 시설 훼손, 범죄 행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에드워드 왕자의 터널’로 명명된 도보터널은 켄트市와 런던 동남부 지역의 다퍼드 중앙공원을 연결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크고 작은 안전 사고와 공공시설 훼손사고가 적잖게 보고된 우범지역이었음. 市는 시민들이 안전을 우려해 우범지역으로 변한 도보터널을 이용하지 않게 되자 2008년부터 이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실시함. 市는 이 도보터널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해 유명 작곡가 말러의 교향곡을 틀기 시작함.
- 2011년까지 4년간 클래식 음악을 틀 결과 이 지역 범죄 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클래식 음악을 틀지 않은 다른 지하보도와 비교하면 음악을 틀 터널이 훨씬 깨끗하게 변모함. 이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는 데 가장 효과가 큰 음악은 말러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짐.
- 도보터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곳곳에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약 2만 파운드(약 3450만 원)의 예산을 들였음. 그런데 범죄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평가받음.



【클래식 음악을 틀고 난 뒤 우범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난 '에드워드 왕자의 터널'】

(www.bbc.co.uk/news/uk-england-kent-14583245)

(www.telegraph.co.uk/news/uknews/8707685/Mahler-helps-tackle-young-vandals.html)

도 시 환 경

4. 사회·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 도시경관 조성전략 수립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7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205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 이 전략의 목표는 자

연적이고 도시적이며 생산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임. 또한 이 전략은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구 및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녹지와 공원을 개조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와 같음.

- ① 녹지 및 공원 재개발: 기존의 녹지와 공원을 기후와 인구 변화, 도시생활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개발함. 각각의 재개발사업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도록 함.
- ② 가로수 심기: 가로수는 도시경관의 형태뿐 아니라 그늘을 통한 차단효과로 기후 변화 속에서도 도시를 쾌적하게 함. 현재 베를린에는 총 5336km의 도로 주변에 43만 5651그루(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가로수가 있지만 앞으로 1만 그루를 더 심을 계획임.
- ③ 혼합림 조성: 기후 변화를 고려해 현재의 침엽수림을 혼합림으로 변화시켜 자연친화적인 산림경영을 지속함.
- ④ 건물 사이 공간의 녹지화: 밀집한 도시의 기후 개선을 위해 건물 마당, 외벽, 지붕의 녹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상담과 홍보, 네트워킹을 강화함.
- ⑤ 생산적인 조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지(空地)를 주말농장이나 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인 녹지로 조성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녹지 이용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녹지 이용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경관의 미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
- ⑥ 아름다운 길의 도시: 20개의 주요 녹색길을 서로 연결함.
- ⑦ 도시의 자연: 도시경관 조성전략의 핵심은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생물 다양성, 생태계 연결 등을 강화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19.1235.35170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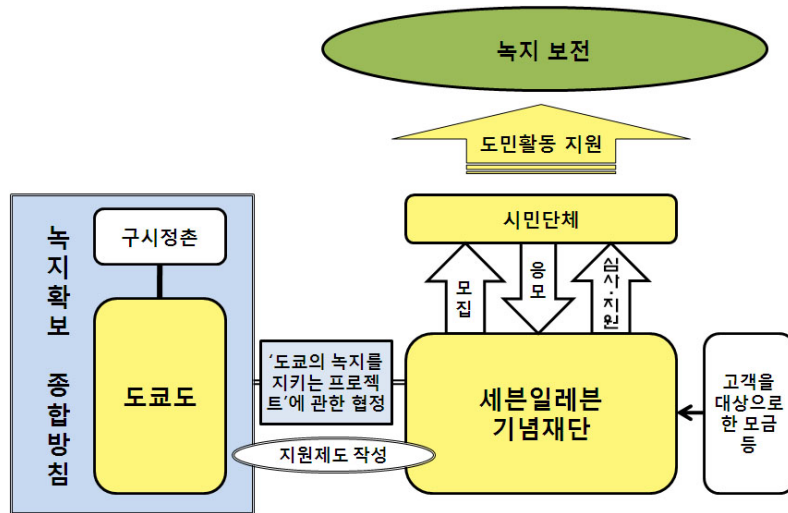
(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stadtgruen/stadtbaeume/de/daten_fakten/downloads/ausw_137.pdf)

5.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 지원단체 모집 (도쿄)

- 도쿄都 도시정비국은 세븐일레븐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지를 보호하고 가꾸어가는 시민활동을 지원할 단체를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모집함.

-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란 시민단체가 멸종 위기의 수림대(樹

林帶)를 유지하거나 보전하고, 녹지가 적은 지역에서 이를 증가시키며, 도민들이 녹지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활동에 대해 그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都의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의 실행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음.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 지원제도의 개념도】

- 이 사업은 세븐일레븐 기념재단이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NPO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11년 3월 도쿄를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임. 2011년에만 15개 단체에 약 274만 엔(약 3900만 원)이 지원되었음. 지원대상 항목은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장비비, 소모품비, 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이며 인건비와 식비는 지원되지 않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연간 10만 엔(약 14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8/22l8g102.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8/22l8g100.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8/22l8g101.htm)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선택적 촉매 저감 장치를 버스에 장착하는 시범사업 실시 (런던)

-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NOx)을 꼽을 수 있음. 런던교통공사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양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촉매 저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2개 민간 청정 기술업체를 선정함.
- 선택적 촉매 저감(SCR) 장치는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를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총 18대의 버스에 설치될 예정임.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Emino社와 HJS社가 절반씩 선택적 촉매 저감 장치를 공급·설치함. 市는 노선·지역별 특성에 따른 저감장치의 반응과 성과를 두루 평가하기 위해 1년에 걸쳐 3개 구역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계획임.
- 이 저감장치는 배기관에 삽입된 요소(尿素, Urea)가 암모니아를 변형시킨 뒤 산화질소를 만나 질소와 수증기로 배출되도록 하는 원리로 운영됨. 런던교통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감장치에 대한 자세한 기술 정보와 사업 진행상황을 공개해왔음.
- 市는 201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유로 기준 IV를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움. 현재까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버스는 8500여 대에 이르며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버스는 2700여 대임.
- 대안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첨단버스를 도입하는 데 주력해온 市는 기존 버스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모든 시내버스가 먼지에 대한 유로 기준은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먼지 배출량은 1997년 200톤에서 2010년 13톤으로 급격히 감소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0778.aspx)

도 시 교 통

여름철 도로공간 개방 프로젝트 'Summer Streets' 시행 (뉴욕)

- 뉴욕市 교통국에서는 시민을 위해 여름철 도로공간 개방 프로젝트 'Summer Streets'를 2011년 8월 한 달간 시내 주요 구간에서 시행함. 市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에 있는 파트너나 후원자들이 행사를 돕고 있음. 市 교통국은 교통기반시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데 반해 기후 변화는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됨.
 - 이 프로젝트는 8월 중 4~5일을 정해 브루클린 다리, 센트럴 공원을 비롯해 교통량이 적은 허드슨 강가, 할렘 지역의 도로공간을 개방해 놀이, 자전거 타기, 걷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여름철 공공공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래예술가와 함께 하는 Sand Box 행사,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 무료 대여, 암벽등반, 요리 만들기, 자전거 무료 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한편 市 교통국은 교통환경 자체가 시민고객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거리 조성, 교통국 전략계획 등과 같은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음.

(www.nyc.gov/html/dot/summerstreets/html/home/home.shtml)

6. 향후 20년간의 도시 미래를 담은 새로운 ‘런던플랜’ 출간 (런던)

○ 런던시는 향후 20년간 런던의 미래를 담은 새로운 ‘런던플랜’을 2011년 7월 22일 출간함. 이 런던플랜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일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이번 런던플랜은 이전의 런던플랜보다 시민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됨.

- 런던플랜의 주요 목표는 도시성장, 경제개발, 기후변화 대응, 환경, 주택, 교통 분야에 대해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임. 특히 도시성장 속도에 맞춰 충분한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보조하는 교통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룸. 무엇보다도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런던플랜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를 통해 침체된 런던 동부지역의 재생을 모색하는 전략도 제시함. 또한 런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과 랜드마크에 대한 보호와 보존 정책도 다루고 있음. 이와 함께 ‘런던 경관관리지침’을 통해 경관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런던플랜이 간과한 도심 주변지역(Outer London) 자치구의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도심 주변지역 타운센터의 경제 활성화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유도함.

- 런던시장은 새롭게 출간된 런던플랜이 런던의 경제 성장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센터, 사람이 살 만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www.london.gov.uk/press_releases/all?page=3)

7.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정책 추진 (일본 교토市)

- 문화도시 교토의 뛰어난 경관을 보호하고 50년, 10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교토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건물 높이와 디자인, 옥외 광고물 규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관정책을 마련해 시행함.

- 2010년부터 추진한 경관정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한 ‘교토 경관백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시민과 사업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관 조성체계 정비와 디자인 보완, 디자인 보전지역 재검토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실시함.

- 주요 정책 방향은 ① 자연과 공생하는 경관 조성, ② 전통문화의 계승과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경관 조성, ③ 문화도시 교토의 이미지가 녹아 들어가는 경관 조성, ④ 도시의 활력을 창출하는 경관 조성, ⑤ 행정기관, 시민, 사업체 간의 협력을 통한 경관 조성 등임.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물 높이 규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건물 높이를 조정함. 아래 그림은 건물 높이 조정의 한 예임.



【경관정책(건물 높이 규제) 실시 전(왼쪽)과 후(오른쪽)】

- 건물 디자인 :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을 계승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 설계기준을 검토함. 아래 그림과 같이 주변 거리에 맞춘 차양을 도로를 따라 설치해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주변 경관을 배려하고 있음.



【주변 거리에 맞춘 차양을 도로를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

- 옥외 광고물 규제 : 옥외 간판이나 점멸조명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옥외 광고물의 높이, 크기, 색채 규제를 재검토함.



【경관정책(옥외 광고물 규제) 실시 전(왼쪽)과 후(오른쪽)】

(www.city.kyoto.jp/sogo/seicho/report/kankyo/kankyo_keikan01.html)

‘유비쿼터스 계획’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공모 (도쿄)

- 도쿄都是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와 산업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유비쿼터스 ID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을 추진함. 유비쿼터스 ID 기술이란 장소와 물건에 고유 ID를 부여하고 컴퓨터가 이를 자동 인식함으로써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연결해주는 최첨단기술을 말함.
-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긴자(銀座) 실시협의회’는 유비쿼터스 ID 기술의 실용화·시장화를 위해 긴자 지구와 니시신주쿠(西新宿)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환경에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윤을 도모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2011년 8월 말까지 공모함. 응모자격은 기술개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기업과 단체로 한정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7/22/7t100.htm)

(www.tokyo-ubinavi.jp)